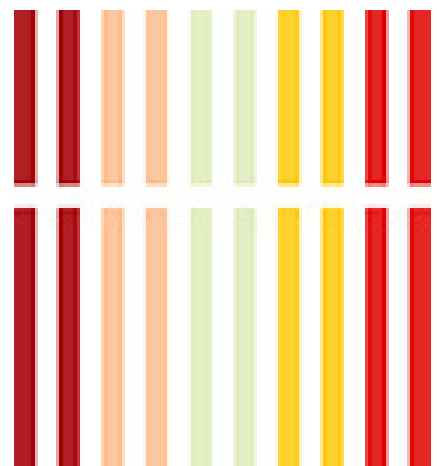


Nr. 559 (2025- 09-10)

임치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일치

편집부

청명한 하늘과 풍성한 들녘이 어우러지는 가을, 우리는 조화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곡식과 열매가 하나의 밭에서 자라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평화의 끈으로 결합하여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치를 보존하십시오.”(에페 4,3) 사도 바오로의 이 권고는 우리 신앙인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 모여, 교회를 하나로 세워갑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치’라는 주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뤄지는 일치가 우리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9.13-18

13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4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15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16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17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18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8월 10일 청년 성서연수 감사미사



8월 10일 정현수 스테파노 부제님 송별

일치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실장님과 함께 /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청년 성서연수 소감 / 변준민 에릭, 김고은 일루미나

-

제 35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쇄신 묵상회 소감 / 전정화 미카엘라



2025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초심 (Neues Herz)

3,4월 십자가 (Das Kreuz)

5,6월 어머니 (Mutter)

7,8월 순례 (Wahlfahrt)

9,10월 일치 (Einheit)

11,12월 탄생 (Geburt)

실장님과 함께

참여, 일치 그리고 사랑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

여름에 걸쳐 <오늘의 복음과 묵상글>에 자주 등장하는 마태오와 루카 복음서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묵상글에는 교회가 부분들의 합이 아니고, 권력 구조를 내세우지도 않으며, 민주주의로 세워진 기구도 아니고, 결국 교회가 힘주어 외치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공동체에 사랑을 바탕으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님은 2008년 LA 성령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뭘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기준이 뭘니까? 일치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일치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과 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짜깁기와 다른 사람의 삶의 짜깁기가 일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일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짜깁기'란 직물이나 옷감의 찢어진 부분을 원래 천의 울을 살려 꿰매어 기워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 삶의 짜깁기'는 내 삶의 찢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손상된 부분에 다른 천의 울을 살

려서 조화롭게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짜깁기가 필요한 손상된 우리의 삶 일부는 각자 짚어진 고난과 십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마다 짚어진 십자가는 달라도 서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로 힘들어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찌면 나의 십자가와 벗들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일 것입니다." 라는 김상우 바오로 신부님의 묵상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삶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짚어진 십자가가 다르다고 그 십자가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든지, 자신의 잘못된 잣대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측정하고 무시한다거나 멀리한다면 나는 다른 이웃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즉 주님의 십자가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 내 삶의 짜깁기와 다른 삶의 짜깁기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치란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를 갖는 '동일'과는 다릅니다. 즉 서로 어긋나지 않고 같거나 들어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족, 문화, 생활 조건과 양식에서 풍부한 다양성을 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 책임

을 다하려면 우선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납세, 국방의 의무 등등 사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선 즉 „공동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 사회적 사랑의 실천이듯 교회의 다양성도 참여를 시작으로 일치와 끈으로 묶어져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 17, 21)

그러나 형제적 사랑으로도 공동체의 노력으로도 일치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노력할수록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개인이 상관하거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예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일로 맡겨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서로 일치가 될 수는 없지만 매순간 주님께 일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한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한발짝 물러서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와 겸손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일에 꾸준히/열심히 참여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 일치로 향하는 공동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동일하

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덕을 똑같이 나누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덕을 각자에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 나는 여러 가지 덕을 어떤 것은 이 사람에게, 또 어떤 것은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랑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정의를, 또 저 사람에게는 겸손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동하는 신앙을 준다. 이처럼 나는 많은 은사와 은총을, 영신적 육체적 은총들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았다. 나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성을 느껴 내게서 받은 은총과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나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랐다."

우리는 각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참여를 하고 있나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총과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 은총과 선물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그리고 일치와 사랑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봉사자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나요? 아멘. 



8월 10일 김기주 치프리아노 신부님 강론



8월 10일 정현수 스테파노 부제님 송별식

바오로 성인의 발자취를 찾아본 말타 여행기

전영민 수산나

몇년전, 내가 거주하고있는 Moosburg 본당 에서는 바오로 성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위해 Malta와 이웃섬 Gozo 를 순례하였다. 가을로 들어선 지도 한참인 10월 중순경이었다. 뮌헨 에서 두 시간 반 정도의 비행으로 로마와 시칠리아 상공을 지나 Malta 의 Luga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기내에서 나오자 아찔할 정도로 맹렬히 내리쬐는 햇 빛과 쏟아지는 열기는 남국의 정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를 실은 버스가 계곡을 넘고 산등성을 지나 40분쯤 달리니 산 비탈 같은곳에 아치형으로 우아하게 꾸며진 아담한 호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 저녁, 여장을 풀고 우리는 호텔의 풀이 (Pool)있는 야외에서 뷔페식 저녁 식사를 했다. 낮 동안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진 살갗을 기분 좋게 식혀주는 바닷바람 맞사지는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들 정도였다.

150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였다는 말타는 60 년 전에 독립하였고 아직도

영국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듯 언어도 말타 고유의 말이 있다지만 거의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남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야자수들이 곳곳에 우람하게 서있고 온 섬이 꽃의 향연을 이루고 있었다. 시가지는 바다보다 높아 어디서나 바다 를 내려다 볼 수 있었고 시원하게 불어주는 바다바람은 상쾌하기 그지 없었다.

말타는 유럽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이다. 그 많은 돌들과 끝없이 이어진 돌담들은 꼭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000-5000 년 전에 그곳 원주민 들이 지었다는 돌로만든 신전과 거기에 따른 수 많은 이야기들은 그 때의 생활 풍경을 보는듯하여 경이로우면서도 감동 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말타의 수도인 발렛타는1980년도에 세계문화 유산지로 지정 받은 곳이다. 위풍당당하고 호화로운 건축물들은 그 아름다움이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듯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고 지중해에서는 가장 큰 항구도시로 거대한 야외 민속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계단으로 이어진 길 거리와 집집마다 담

벽에 도자기로 만들어 부착한 성화나 성자상은 그들의 깊은 신앙심을 말해주는 듯 했고 말타 특유의 전통적인 발코니는 집안의 환기와 빛을 받아 들이기위한 것이었지만 부녀자들에게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가능케 하고 지나가는 행각이나 이웃들과의 잡담이나 수다를 늘어놓던 장소로도 이용 했다고 한다. 여기저기 정박해 있는, 웬만한 보통 집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유람선박들도 볼만한 풍경중 하나였다.

말타섬은 바오로와 그의 동료들이 로마로 가는 도중 배가 파선 되어 익사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그곳 주민들로부터 구출을 받고 각별한 환대를 받았던 곳이다. 그런일로 바오로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를 선포했다는 곳으로 유명하며 말타의 수호성인으로 추앙을 받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말타섬이 실제로 바오로와 그 동료들의 배가 파선되어 그곳 주민들 로부터 구출을 받은곳이나 아니냐는 것으로 옥신각신하고있다.

그 중 하나의 예가 말타섬은 아드리아 해에 있지 않고 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러차례 아프리카 멜리테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19세기부터는 말타가 유럽대륙에 속해 있으면서 장소기재에 엇갈리는 난점이 있었을 거라는 예가 그 중 하나이다.

바오로가 독사뱀에 물린 적이 있는데 아예 뱀들이 말타섬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 주장의 근거이다. 그런저런 이

유로 말타냐 아니면 어느 다른 지역이냐로 교회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쟁을 이루고 있지만 말타가 압도적인 곳으로 추정을 받는것은 실제적인 이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그곳일 거라는 강한 뒷받침의 지지를 받아서라고 한다. 사실 그러한 지명적인 것이 중요치 않으므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말타섬을 바오로가 구출받고 그리스도교를 선포한 곳임을 추정하셨다는 여행안내자의 말이 있었다. ■■■■



8월 24일 미사후 뒷풀이



8월 31일 차재호 리차드 아버지 차명익 미카엘 세례식 1



8월 31일 차재호 리차드 아버지 차명익 미카엘 세례식 2

청년 성서연수를 다녀와서

변준민 에릭

찬미예수님! 이번 유럽 10차 창세기 청년 성서 연수 소감문을 쓰게 된 변준민 에릭입니다.

저는 이번 창세기 성서공부를 시작하기 전, 제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냉담 끝에 지금 다시 뮌헨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과연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서 나오는것인지, 아님 단순히 성당 사람들과 만나는것이 즐거워서 나오는것인지 이 성서공부를 통하여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4개월간에 성서 공부를 통하여 저는 저의 의문에 답을 얻고 연수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성서 연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연수를 참석하기전에는 단순히 성서 공부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누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 없이 저는 이번 연수를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제가 생각했던것과 달랐습니다. 4일간의 연수를 통하여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알게되었고, 제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진심으로 소통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성서 공부를 참여하여 여러분의 생활속에 그분께서 손수 준비해주시는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것을 준비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훼 이레! 🌈



7월 25-27일 청년 성서연수 1

청년 성서연수를 다녀와서

김고은 일루мина

연수에 도착해 첫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빠뜨려서는안 될 준비물’ 세 가지 중 뜨거운 마음을 제외한 빈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연수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하던 당시에는 다른 두 가지는 몰라도 빈 마음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세 가지 중 빈 마음이 가장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결심 없이 성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라 무턱대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임을 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서 연수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참가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수가 끝날 때까지도 연수에 참여한 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연수 생활은 사소한 부분까지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마치고 다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그 시간이 오히려 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정돈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안내서를 통해 성서 연수의 목표가 ‘신앙 성숙의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아직 저는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거나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자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수 동안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속마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 제가 지냈던 사람에 대한 불확신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계기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같고, 그것이 저에게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저만의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7월 25-27일 청년 성서연수 2



8월 10일 청년 성서연수 참가자 울동

성령 쇄신 묵상회를 다녀와서

전정화 미카엘라

이번 성령 묵상회의 주제는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였습니다.

이 주제에 걸맞게 묵상회를 통해 받은 가장 큰 은총은 인간의 머리로 가늠할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그 크기와 폭과 너비를 조금이나마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빠 하느님! 하느님 사랑을 먼저 알게 해 주시고 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의 오류들,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속 내면의 상처. 그리고 풀지 못하고 쌓아 두었던 미움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녹여 없애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하고 그려왔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크나큰 사랑을 보여 주시면서 그동안 제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풀지 못했던 내적 고민과 상처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눈 녹듯 사라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참석했던 성령 묵상회는 그곳에서 체험한 것들이 너무 커서 제 신앙에 대한 마음 가짐이 묵상회의 참가 전과 후로 나뉘는 만큼 크나큰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묵상회에서는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타인을 향해 사랑을 더 잘 베풀다고 합니다. 주님께 가득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가 되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조건 없이 퍼부어 주시는 크나큰 은총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청해 봅니다. 아멘. 



제 35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쇄신 묵상회 미사



제 35차 유럽 한인 천주교회 성령 쇄신 묵상회 1



7월 19일 뷔르츠부르크 공동체 가정미사 1



7월 19일 뷔르츠부르크 공동체 가정미사 2



8월 14-17 차재호 리차드, 클라우디아 폴란드 결혼식 1



8월 14-17 차재호 리차드, 클라우디아 폴란드 결혼식 2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

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

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김동년 미카엘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상현 미카엘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hotmail.com